

# 가을 햇살 아래 양주 전통문화 한마당

## 4개 무형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투어공연

양주시가 2005년 서울 숲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양 일산호수공연 투어에 이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별산대놀이와 소놀이 등 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4인방이 제4차 경기투어에 나선다.

2008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무형문화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05년 서울 숲 공연, 06년 서울놀이마당 공연, 07년 고양 일산호수공연투어에 이어 9월 20일에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서 제4차 투어공연이 펼쳐진다.

양주시와 별산대놀이 등 4개 보존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투어공연은 연극인 김종업의 사회로 조선시대 사회문제를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하는 별산대놀이(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전통 장례의식을 재현하는 삼여와화다지소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소를 주제로 사업·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소놀이(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절기별 농사짓는 과정을 노래가락으로 풀이한 양주농악(경



양주시가 2005년 서울 숲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양 일산호수공연 투어에 이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별산대놀이와 소놀이 등 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4인방이 제4차 경기투어에 나선다.

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공연이 마련되어 시민들은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

가을의 문턱에 섰듯 들어선 오는 9월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제4차 투어공연에는 25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다. 양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이자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인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은 물론, 문화를 지역개발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은 매년 지속적으로 대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택 기자 [uralsim@nate.com](mailto:uralsim@nate.com)

### 동두천소방서

#### 축사시설 소방안전점검 실시

동두천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최근 축사시설 화재가 자주 발생해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돈사 등 축사시설 3개소에 대해 9월19일부터 9월22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축사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소방서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많아 화재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자들의 화재안전의식이 강조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관계자들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전기기기 주변 화재요인 제거 및 주변성에 대해 점검 실시된다.

김연택 기자 [uralsim@nate.com](mailto:uralsim@nate.com)

# 새터민 찾아 정성어린 마음 전달

## 양주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 추석 앞두고

양주경찰서(총경 최원일)와 양주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조중대)는 9월12일 추석을 앞두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국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과 추석명절을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각 세대당 쌀1가마니와 상품권(1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1년7월 태국을 경유 입국한 장모(35·여)씨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인정이 넘치는 곳이라서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mailto:best114@paran.com)



양주경찰서와 양주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9월12일 추석을 앞두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국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과 추석명절을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각 세대당 쌀1가마니와 상품권(10만원)을 전달했다.

#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연천교육청 2007년 개정교육과정 연수 실시

경기도연천교육청은 9월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천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연천 관내 중학교 교사 전체(108명)를 대상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한 연수를 실시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고 2007년 2월에 개정고시 되었다. 개정의 요점은 단위학교의 특성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사교육 강화,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학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간 교과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인문·사회·문화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은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 2010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2011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연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연수는 2007 개정교육과정 이 단위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김연택 기자 [uralsim@nate.com](mailto:uralsim@nate.com)



경기도연천교육청은 9월17일 연천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연천 관내 중학교 교사 전체(108명)를 대상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한 연수를 실시했다.

# 특색 있는 명품김치마을 기대!

## 연천군, 초성권역 농촌개발사업 준공식 개최

연천군은 9월18일, 청산면 초성리 김치테마파크에서 농촌의 안락함과 쾌적함을 증진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68억4천9백만원 중, 1단계 사업으로 54억3천8백만원을 투입해 2007년 4월 27일 착공했으며 올해 7월16일 준공한 '초성권역 농촌개발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규배 연천군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연천군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 학교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활성화센터 등 21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연천군 청산면 초성 1리·2리·3리·4리 일원 8.83㎢가 사업대상지로 김치체험테마파크(22,058㎡), 김치종합센터(757㎡) 등을 조성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에 한국농촌공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에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6년 10월에 경기도에 변경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아, 2007년 4월 연천군은 제6군단과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초성권역을 명품김치마을로 조성하게 된 것은 '기무치'를 생산하는 일본에 연간 약백만톤의 김치를 수출하고 지난 97년에 ISO9002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삼투

압 원리로 염수를 8~10%에 맞추어 가장 이상적인 염수농도를 유지하는 청산김치의 맛과 신뢰,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공동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초성리 농촌개발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선재, 초성2리 이장)과 조합원들은 늘 함께하면서 단합하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하는 등 민주적인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초성권역 농촌마을의 홈페이지(<http://ch.hanainfo.com>)를 구축해 배추김치, 배추고갱이 등 계절김치, 사계절 김장, 사랑나눔 김치기부 등 각종체험프로그램과 장독대 정식, 김치비빔국수, 배추고갱이보쌈, 시래기 아재나물비빔밥 등, 먹거리 뿐만 아니라 영상장비가 완비 구비된 세미나실 등 초성김치마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택 기자 [uralsim@nate.com](mailto:uralsim@nate.com)

### ▶ 기사도움말 : 용저창고

용저창고(Mud cellar storage): 수확한 농작물은 실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썩이 나거나 썩을 우려가 있고 겨울철이면 냉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수확한 즉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땅속에 움을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는 저장법.

# 불발탄, 빠른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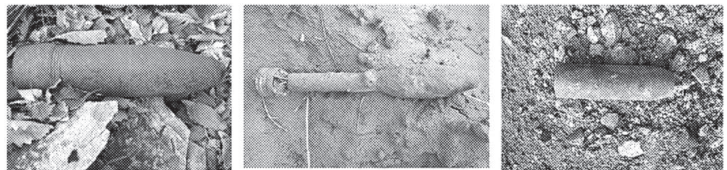
## 육군 제26기회화 보병사단, 주민신고로 안전하게 불발탄 회수

육군 제26기회화 보병사단은 9월1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도라산에서 불발탄 발견 신고를 접수, 안전하게 불발탄을 회수했다.

부대가 불발탄 발견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최근 후우로 쓸려 내려온 폭발물에 인의 큰 충격을 가하다 폭발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부대에서 탄약·

폭발물 발견시 조치사항'이라는 안내문을 지역기관에 배포했다.

이 안내문에는 호기심에 의한 임의분해 및 투척을 금지하는 경고와 함께 신고전화번호, 민간인 폭발물 사고 사례, 그리고 유기 탄약과 폭발물 사진 등이 포함되어 폭발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05밀리탄> <3.5인치> <4.2인치>  
<40밀리탄> <81밀리탄> <M14에이저>  
유기탄약/폭발물 종류

안내문을 제작한 육군 제26기회화 보병사단 탄약장교(대위 정육중)는 "폭발물은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처리해야 한다"며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는 우선 접근을 멈추고 즉시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불발탄 발견 신고를 접수한 부대는 즉시 현장에 정보분석조와 5분 전투대기부대를 투입, 원점을 보존하고 등산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의 박수를 한몸에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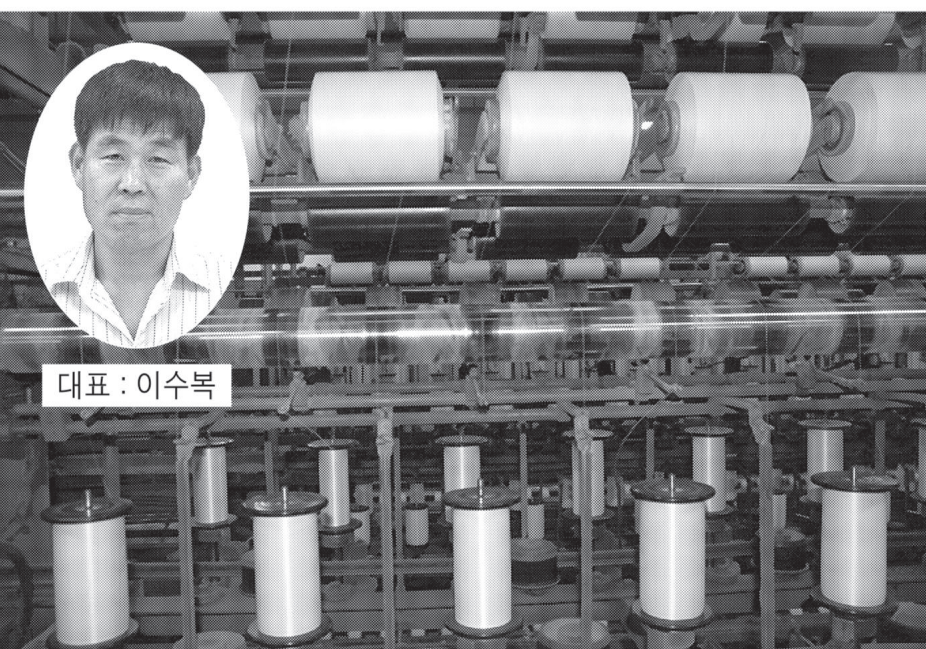
부대는 이번 폭발물 발견 제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함과 더불어 자치단체와 협조, 지역주민들에게 폭발물 발견시 조치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기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폭발물 처리를 위하여 인접 부대 불발탄 처리반과의 실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택 기자 [uralsim@nate.com](mailto:uralsim@nate.com)

# 스판덱스 카바링사의 선두주자

# 수성섬유

수성섬유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 : 이수복



주요생산품목

스판덱스 카바링사

위 치 :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146-9번지  
전화번호 : 031-544-6455  
팩스번호 : 031-544-6456  
대 표 : 이수복